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3(日)
구름 많음 -3/4℃	구름 많음 -2/4℃

#### News

- 전남 국고사업 20조 요청 ②
- 로스쿨 탈락 반발 확산 ③
- 지성·영표 맞대결 가능성 ⑧

#### Books

- 김병중 리턴하키행 ⑭

#### Entertainment



- 가요계 장르 혼합 붐 ⑧
- 영화계 속편작업 속출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상추 ⑬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선대 총동창회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조선대 로스쿨 유치 범시·도민 촉구대회'를 갖고 로스쿨 재배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선대 직원·학생을 포함한 1천여명이 참가했다. /위직림기자 jrvi@kwangju.co.kr

## 공천갈등 확산 한나라 대흔돈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자 공천자격 불허’라는 당규 3조2항을 둘러싸고 촉발된 한나라 당 내 공천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제집 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을 ‘간신’이라고 비판하며 최측근인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절대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맞받았다.

강 대표는 1일 새벽 분당 자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 대표로서 사무총장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당원들이 대표가 옳은 지, 사무총장이 옳은 지를 잘 판단해 달라”며 사실상 이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사무총장은 “공심위 결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사무총장에 대해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당규 3조2항과 관련해 “당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했지만, 당시 분명히 강 대표는 ‘좀 더 세계 나가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 밀어붙인 당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체행동을 자제했던 친이(친 이명박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헌·당규를 훼손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2명 등 친박인사 70명은 오후 여의도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총장의 즉각적 사퇴와 이 당선인의 조속한 사퇴 수습을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70명 모두가 행동을 통일할 것이라며 ‘집단 탈당’을 시사했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내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당내 일부는 강 대표를 강력 비판했고, 이 중 일부는 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수석 로스쿨 선정 개입 의혹

### 前 홍보수석 윤승용씨 “법학교육위에 익산 출신 넣었다” 조선대 “전면 백지화”...정치권, 최종 발표 연기·수사 촉구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승용씨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원광대가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대 등 탈락 대학과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윤 전 수석의 발언은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제기됐던 답합설, 정치권 개입설 등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며 ▲4일로 예정된 로스쿨 선정 결과 확정 발표 연기 ▲전면적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제공 통신사 뉴스는 “윤 전 수석이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에 구성된 로스쿨 관련 임시 TF팀에 참여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홍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인사를 익산 출신 인사로 밀어 성사시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3명의 법학교육위원 중 언론인은 모 방송국 간부 P씨로, 익산 모 고교 출신이다. 윤 전 수석은 4월 총선에서 익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며 원광대는 익산에 위치해있다.

뉴스는 또 “윤 전 수석이 ‘원광대가 지방 사립대 중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시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점에 착안, 최근 5년 사시 평균합격자 수와 법대졸업생 대비 합격

자 수를 25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기준이 원광대 유치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대는 윤 전 수석의 발언과 관련, 1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로스쿨 신청 대학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한 교수는 이날 “일부 대학이 서울에 사무소를 차리고 로비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가 개입됐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목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 교육위 소집과

4일로 예정된 로스쿨 선정결과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양형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윤 전 수석의 발언은 이번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답합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한다”며 국회와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이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오버한 것 같다”면서도 “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경박스러운 발언”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1월 무역적자 換亂 이후 최대

### 원유 수입액 급증으로 34억 달러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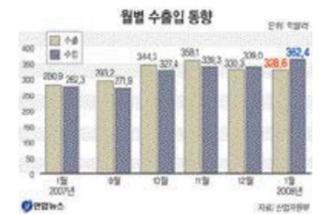
지난달 무역수지가 34억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8억7천만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적자로 사상 두 번째 규모다.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는 원유 가격 탓에 수입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발 경기침체가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으로 전염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서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328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한 13억7천만 달러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원유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수입은 31.5% 늘어난 362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3억 8천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2003년 3월 이후 흑자를 이어가던 무역수지는 4년 9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적자로 돌아섰었다. 지난달 적자 규모는 1997년 1월 34억7천만 달러 이후 두 번째 규모다.

/연합뉴스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200-5000